

# “지방 건설사 회생 실질적 대책을”

## 정부, PF대출 활성화·기존 대출금 만기연장 검토 업체, 세제·금융 비용 감소 등 직접적인 지원 요구

정부가 건설업체에 대한 추가 지원을 검토중인 가운데 세제와 금융부담 완화 등 지방업체를 살릴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올 들어 건설사들의 재무건전성이 크게 악화된 가운데 최근 급등위까지 확산되고 있어 금융지원 확대 및 업체가 보유한 부동산 매입 등 자금 해소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9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정부는 미분양주택 급증 등에 의한 건설업체의 부채를 막기 위한 추가 대책을 집중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정부는 건설업체의 자금난에 숨통을 터주기 위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활성화, 기존 대출금 만기 연장 등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주에 추가 지원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건설업체는 이같은 대책만으로는 수도권을 물론 지방업체의 붕괴 위험을 해소할 수 없다는 데 입장을 같이하고 있다.  
그동안 세 차례의 미분양대책에도 불구하고 미분양 물량이 사상 최대치로 쌓이는 등 시장 상황이 ‘악화일로’로 치닫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7월 말 현재 전국의 미분양은 16만5956가구에 달하며, 이 가운데 11.6%(1만8천627가구)가 광주·전남에 몰려 있다. 이는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업계의 자금난에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  
건설사들의 체감경기가 악화도 심각한 수준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하 건산업)에 따르면 지난달 건설업체의 ‘체감경기지수(CBSI)’는 50.1로, 기준치(100)의 절반 수준까지 떨어졌다.  
이에 따라 건설업체는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한

세제 완화 등과 함께 건설사들의 금융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신규 사업자금 대출 중단과 회사채 만기 등에 따른 자금난 해소에 중점을 뒀다. 이는 지자체가 민간기업체에 공급한 공공택지를 되사주거나 업체가 보유한 부동산 등 자산을 매입해주는 방안 등도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8월 말 현재 민간 건설업체들이 토고공에 지불해야 하는 공동주택용지 분양대금 연체는 무려 7천억원에 달한다.  
이같은 연체 규모는 1년 전인 지난해 8월 말의 연체금액(340억원)에 비해 20배 이상 급증한 것이어서 업체가 보유한 토지 매입에 대한 필요성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하지만 이 방안은 업체의 도덕적 해이 논란을 불러올 수 있는 데다 토지공사 또한 막대한 부채에 시달리고 있어 수용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편 정부는 이번 대책에 담보인정비율(LTV)이나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을 완화하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정희기자 choice@kwangju.co.kr

# 은행, 中企 대출 만기 연장 나선다

## 강만수 장관 “수출업체 5천억 추가 지원”

은행들이 환 손실 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대출금의 만기를 연장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청 홍서우 청장은 9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시장은행과 중소기업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기업 금융지원위원회를 가진 뒤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금융권의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전했다.  
홍 청장은 “금융권에서 (대출금의)만기연장은 (해당 기업이) 극단적인 하락이 없는 한 추진하고, 중소기업 할부금도 대폭 연기하며

지원자금도 늘리겠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또한 “금융권에서 은행별로 우량기업 바로 밑의 기업을 선별해 회생기업으로 선정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홍 청장은 이와 함께 회생특례자금으로 300억 원을 추가 조성해 이날부터 기코 손실기업에 업체당 연간 10억원 이내로 지원할 예정이다. 대출기간은 거치기간 1년을 포함해 3년이다. 아울러 내년도 긴급경영안정자금으로 편성된 3천억 원의 기코 등으로 유동성 위기에 놓인 기업에 우

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벤처산업협회에서 열린 중소기업·벤처기업 최고경영자(CEO)와 오찬 간담회에서 중기 유동성 공급방안의 일환으로 신용보증기금의 매출채권보험 인수규모를 전년대비 3천억 원 이상 늘어난 3조3천억 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아울러 수출입은행을 통해 외화대출 2천억 원 등 총 5천억 원의 수출중기에 대해서 추가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출중기 금융지원 규모는 7조5천억 원으로 늘어난다. /연합뉴스

# 저소득층 주택대출 원리금 상환 걱정 덜다

## 금감원장 “은행권 거치기간·만기 연장 지도”

경기 침체와 금리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이 주택담보대출금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9일 기자 간담회를 갖고 “소득 하위 20% 계층 등 저소득층은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은행들이 이들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의 거치기간(원금 상환 유예기간)을 늘려주거나 만기가 10년이면 15년 등으로 연장하도록 조만

간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고객이 대출금을 제대로 못 갚으면 은행들의 건전성도 나빠지기 때문에 대책이 필요하다”며 “모든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상황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대상으로, 이달 안에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기업들의 수익성·건전성 지표도 미국보다 좋아서 은행과 대기업이 위기를 겪을 가능성

은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중소기업은 다소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추가 조산하지 않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무주택 서민이 전세자금을 빌릴 때 이용할 수 있는 주택금융보증의 한도가 현행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늘어난다.  
금감위원회는 9일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주로 전세자금 및 중도금 대출시 활용되는 주택금융보증금의 개인보증 최고한도를 2억 원으로 100%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송아지 1마리당 17만5천원씩 지원

### 전남도, 한우 농가에

전남도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와 사료값 폭등 등으로 경영 여건이 악화된 한우 사육농가에 송아지 1마리당 생산안전자금 17만5천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도는 올 3·4분기 송아지 평균거래가격이 147만5천원으로 송아지 생산안전기준가격인 165만 원보다 하락함에 따라 그 차액인 마리당 17만5천원의 보전금을 이달 말 이후 농가에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 보전금 지급은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송아지(4~5개월령) 평균 거래가격이 안전기준가격보다 떨어질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해 주는 송아지 생산안전사업에 따른 조치다.  
/채희정기자 chae@



### “나주배 많이 드세요”

이덕수(오른쪽 두번째) 농협전남지역본부장과 임직원들이 9일 경기도 고양우통센터에서 나주배를 판매하고 있다. 농협전남지역본부는 배 소비 감소와 더불어 재고 증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배 재배농가들을 위해 9~12일 서울 양재우통센터와 고양우통센터에서 ‘배 소비 확대를 위한 나주배 직판장’을 열어 5kg들이 나주배 1만 상자를 판매할 계획이다. (농협전남본부 제공)

## 유망 中企 발굴·지원 사업 활기

### 광주·전남중기청, 제조·서비스업 지정 금융 혜택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청장 박준근)은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발굴, 수출유관기관의 우대지원을 통해 수출중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2008년 하반기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원사업을 펼친다.  
지정대상은 광주·전남 및 제주지

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체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중 수출경쟁력이 우수한 업체이며, 순수내수기업 및 전년도 수출실적이 500만불 초과업체는 제외된다.  
/이정태기자 jilee@kwangju.co.kr

업은 향후 2년간 중소기업청, 수출보협공사, 무역협회, 신용보증기금, 수출입은행, 시중은행 등 23개 수출유관기관으로부터 수출입금융·여신지원 시 금리 및 수수료 우대, 해외마케팅 지원 참여우대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정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홈페이지(jg.smba.go.kr) ‘수출지원’란의 게시내용을 참고해 오는 17일까지 수출지원센터로 신청·접수하면 된다.  
/이정태기자 jilee@kwangju.co.kr

## 삼덕통상 웰빙 슈즈 ‘스타필드’ 눈길

### 질병 예방·다이어트 등 메디컬 기능 추가

기능성 신발이 붓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기능성 신발은 일반 신발에 특수한 기능을 추가해 특수한 목적에 맞게 제작한 신발이다.  
그동안 일부 스포츠화를 중심으로 형성된 기능성 신발이 이제는 질병예방, 다이어트 등 메디컬 기능까지 추가하여 생활속으로 파고들고 있다.  
신두주자에 ‘스타필드 워킹셔터’를 내세운 기능성 웰빙슈즈를 생산하는 삼덕통상(대표 문창섭)이 있다.  
삼덕통상은 ‘스타필드’란 브랜드로 뒷굽을 15도 높여 설계한 기능성 웰빙슈즈를 생산하고 있다.  
바른 걸음걸이를 만들어주는 스타필드의 신발구조는 뒷굽을 높이고 아치부분을 받쳐줘 외부압력이나 충격을 분산시켜 무릎·관절·척추 등에 무리를 주지 않는 첨단과학을 지향한다.  
캐나다 캘거리대학교 이화여자 대학에서 실시한 인체공학, 생체역학적 임상실험 결과 스타필드

는 자세교정, 허리 및 무릎보호, 근육강화, 다이어트, 혈액순화, 평발교정 등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덕통상은 1997년 설립 이래 ‘총시(成氣·CHUNGSHI)스타필드’라는 해외 브랜드로 세계 26개국에 수출하고 있으며 2000년 수출 1천만불탑을 수상했다. 현재 미국에 300여개, 유럽에 1천여개 대리점을 확보하고 있다.  
부산공창 외에도 2005년 개성공단 시범단지 신발제조업체로 선정돼 개성 제 2공창에는 지금 현재 2천여명의 북측 종업원이 근무하고 있는 대표적인 신발전문업체이다. 문의 www.stafild.co.kr (문의 1544-5300)  
/이정태기자 jilee@kwangju.co.kr

### 법원경매전문 GG경매컨설팅(주)

(법원 경매입찰장 옆)  
☎ 062-226-0047  
H-P 010-3895-7800

명석한 권리분석, 명쾌한 명도, 명확한 수익성 분석에 의한 재테크 전문상담

▶아파트/빌라				
소재지	면적/층	감평가	최저가	현재가
북산동	무등리3 33평	1억1천5백	8천	1억1천5백
화정동	모이리4 46평	1억1천7백	1억1천5백	1억1천5백
전월동	중흥 33평	9천5백	6천5백	6천5백
대곡동	삼익 32평	8천1백	5천7백	5천7백
인제동	새한 24평	4천8백	3천2백	3천2백
화동	삼익리4 45	1억1천5백	1억1천5백	1억1천5백
도산동	호안 24	5천3백	3천7백	3천7백
문흥동	대우아파트 33	6천3백	4천3백	4천3백
주월동	현대 31	9천3백	6천5백	6천5백
월계동	건영 36	1억1천	7천7백	7천7백
금호동	리안 32	8천9백	6천2백	6천2백
▶상가건물/모델				
소재지	대/건	감평가	최저가	현재가
신안동	61/40	1억4천2백	1억1천7백	1억1천7백
운암동	60/62	2억7천	1억9천	1억9천
유정동	94/144	2억6천5백	1억8천8백	1억8천8백
우산동	188/193	1억4천5백	794천	794천
남문동	40/34	4억3천5백	3억8백	3억8백
학림동	110/259	8억1천8백	4억6천5백	4억6천5백
월산동	109/259	9억5천	5억3천	5억3천
중흥동	117/295	8억8천8백	5억6천2백	5억6천2백
▶주택				
소재지	대/건	감평가	최저가	현재가
월산동	66/30	1억4천2백	7천9백	7천9백
중흥동	48/52	1억1천9백	8천3백	8천3백
소촌동	57/65	8천9백	4천970	4천970
문암동	41/58	1억4천5백	1억1천5백	1억1천5백
오기동	43/50	1억3천4백	9천8백	9천8백
두암동	39/41	9천92	4천73	4천73
중흥동	34/17	6천160	2천760	2천760
▶원룸/상가주택/오피스텔				
소재지	대/건	감평가	최저가	현재가
쌍촌동	63/148	4억2천8백	2억8천5백	2억8천5백
용암동	61/147	3억920	2억7천5백	2억7천5백
중정동	100/190	4억4천750	3억1천5백	3억1천5백
계림동	65/119	3억980	2억9천5백	2억9천5백
두암동	56/104	2억4천3백	1억8천5백	1억8천5백
유촌동	60/133	1억4천8백	1억7천5백	1억7천5백
충정로2가	59/195	14억7천7백	8억2천7백	8억2천7백
주월동	47/63	1억3천1백	5천8백	5천8백
두암동	62/171	5억3백	2억9백	2억9백
중흥동	71/162	3억1천4백	1억7천5백	1억7천5백
월계동	55평	2억2천	9천8백	9천8백
화정동	금호리3동	8천5백	3천8백	3천8백
근린	동림동	삼익리4동	5천5백	2천4백
상가	오차동	상가리4동	2천	1천1백
상가	계림동	40평	4억6천3백	2억9천5백
상가	중안동	15평	6천3백	3천5백
상가	계림리4동	10평	4천	1천7백
오피스	동원리4동	11평	4천8백	2천
오피스	규명리4동	20평	9천5백	5천3백
오피스	금호리4동	15평	7천	3천1백
▶토지/공장				
소재지	대/건	감평가	최저가	현재가
신안동	전627평	4억9천	2억2천3백	2억2천3백
중정동	전448평	7천8백	4천4백	4천4백
옥동공장	636/300	5억8천8백	4억4천5백	4억4천5백
나주노안	대107평	1천130	6백34	6백34

## 초유가시대 ~! 기름 한드럼에 30~40만원~!!

# 저탄식 순간 전기 보일러 온수기

※ 난방, 온수 근심걱정 해결

홈페이지 : www.돌고래보일러.kr

### 심야전기를 못쓰는 영업용 시설에 최적함.

설치장소(난방/온수)

- 그린생활시설·식당 등 상용시설
- 숙박/중식·호텔·펜션,콘도
- 교육/중고사설·미용실·사우나·스포츠시설
- 공업시설·가사·공장난방 및 온수시설
- 복지시설·요양원, 임민원, 기관

### 제품의 특징

- 순간 가열방식과 저탄방식의 장점을 혼합하여 최첨단 기술력으로 최고의 열효율과 경제성
- 타제품에 비해 적은 전력량으로 많은 난방공간을 활용
- 전자동 온도조절의 편리한 기능과 5중 안전장치 내장
- 유리단 단열처리로 뛰어난 보온성
- 순간가열식과 즉열식을 접목하여 일반 전기사용
- 기존 순간식 보일러 대비 1/2

★참점료인 전기에너지 사용으로 유가인상 및 유류가격경쟁이 없으며 긴 수명기간 고장 걱정이 없습니다

### 기름값대비 60~80% 절감효과

지금 즉시 신청 하십시오/시범주택 보급가격

MODEL	소비전력 (KW/h)	표준난방(평)	배치(2층/3층/4층)에 따른 소비자가격
ED50-1.5KW	1.5KW	18㎡(5~7)	₩298만원
ED50-3KW	3KW	35㎡(10~12)	₩398만원
ED100-6KW	6KW	70㎡(20~25)	₩458만원
ED210-10KW	10KW	100㎡(30~35)	₩505만원
ED210-16KW	16KW	140㎡(45~50)	₩548만원
ED210-20KW	20KW	185㎡(55~60)	₩598만원
ED430-30KW	30KW	270㎡(80~90)	₩719만원
ED430-38KW	38KW	340㎡(100~120)	₩825만원

(설치비 전액 3년간 분할)

생산공장·전문가가 직접 완벽 시공·설치교역

(보철 및 AS)

## 대우일렉서비스

서비스 문의 전화 전국 어디서나 1588-0082

언제 어디서나 Yes!!  
가족처럼 소중한 고객을 위해 김동서서비스

· 특목부서 07514850 · 국적특목부서 PCT/KR2007/OO6534 · 특목부서 10-2007-0082-632

## 무료상담전화 080-909-0088

## 구입문의 010-9469-9373